[별지 제2호 서식]

국립공원관리공단

프로그램 진행개요

프로그램명	**역사가 살아 숨쉬는 생태계의 보고 입암산 습지 탐험**		
활동목표	내장산국립공원 입암산에서 느낄 수 있는 살아있는 역사의 흐름과 자연을 통해 선조들의 나라사랑하는 마음을 느껴보고 숲이 우리에게 주는 즐거움과 이로움을 몸소 체험함으로써 지역적 특성과 국립공원의 가치 등을 알려 탐방문화를 개선함		
해설주제	입암산성의 의의와 산성 내 고산습지의 생성 배경을 알아보고 습지의 역할과 중요성을 생각해본다.		
해설재료	도시락, 물, 간식, 손수건	**소요시간(')**	180분

프로그램 진행순서

해설단계	해설주제	주요내용	소요시간(′)
동기유발	1. 첫만남	국립공원 소개 및 산행 전 스트레칭	15′
주제별 해설	2. 지명유래	남창과 장성새재 지명유래 알아보기	150′
	3. 산림욕의 효과	삼나무 숲에서의 산림욕	
	4. 입암산성의 역사	입암산성의 역사와 전체모습	
	5. 남문성곽	입암산성의 축성과 구조	
	6. 몽골군의 침입과 송군비 장군	고려시대 몽골군의 침입과 송군비장군에 대한 역사해설	
	7. 윤진순의비	임진왜란과 윤진장군에 대한 역사해설	
	8. 맨발로 걷기	숲길 맨발로 걸으며 자연 느끼기	
	9. 옛 성내리 마을	옛 성내리 마을에 대한 설명과 선조들의 생활상	
	10. 산성내부 습지	자연에서 습지의 역할	
	11. 녹두장군 전봉준장군	동학운동과 전봉준장군에 대한 역사해설	
	12. 송정행상각자	나라와 자연을 잃은 슬픔	
마무리	13. 마무리	소감나누기 및 몸 풀기 체조	15′

[별지제3호 서식]

국립공원관리공단

해설 시나리오

프로그램명	역사가 살아 숨쉬는 생태계의 보고 입암산 습지 탐험

해설주제	세부 시나리오
1. 첫만남	여러분 안녕하세요. '역사가 살아 숨쉬는 생태계의 보고 입암산 습지 탐험' 프로그램을 함께 할 내장산국립공원백암사무소 자연환경해설사 000입니다. 이렇게 내장산국립공원남창지구를 찾아주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은 어디에서 오셨나요?(참여유도/의견정리) 이 자리에 서서 주위를 둘러보니 마음이 편해지는 느낌이 드시죠?(참여유도/의견정리)네 좋습니다. 오늘은 모든 일을 잊고 자연에 몸을 편안하게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긴 여정을 떠나기에 앞서 국립공원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이곳 입암산에 대해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립공원이란 우리나라의 자연생태계나 자연 및 문화경관을 대표할 만한 지역으로 이를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국가가 지정, 관리하는 곳입니다. 그럼 여러분께서 방문하신 이곳은 어떠한 곳일까요?(참여유도) 이곳 입암산을 중심으로 한 남창지구는 내장산국립공원에 속해 있으며, 1971년 11월에 우리나라에서 8번째 국립공원으로 지정 되었습니다. 내장산국립공원은 전북 정읍시에 있는 내장산과 장성군 북하면의 천년고찰 고불총림 백양사가 있는 백암산, 그리고 여러분이 계시는 입암산, 이렇게 3개의 산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한 이곳은 호남의 3대 산성중의 하나인 입암산성과 연중 맑고 깨끗한 물이 흐르는 남창계곡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입암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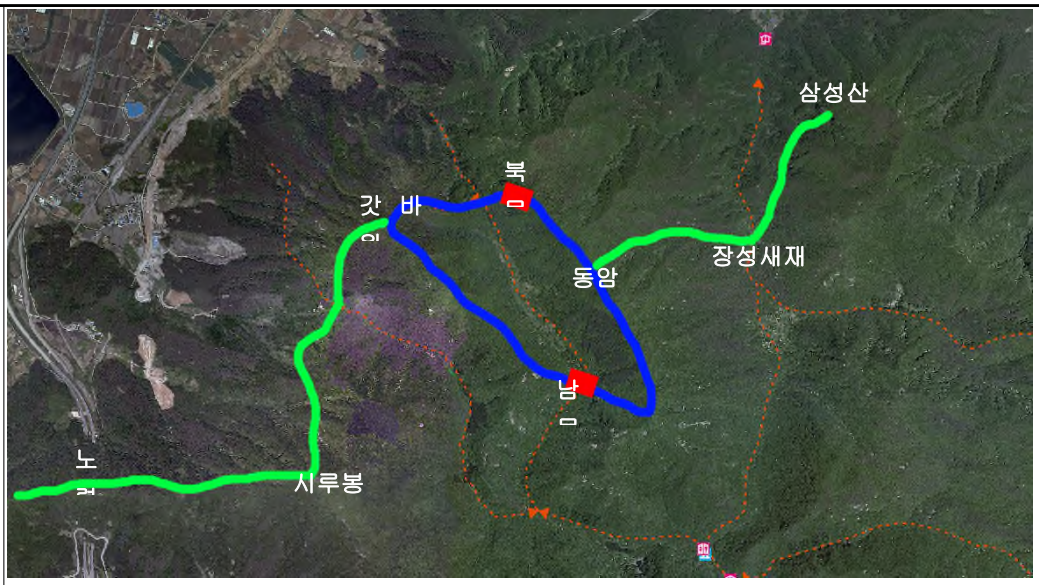
	이라는 명칭은 멀리서 보면 바위가 마치 갓(草笠)을 쓴 것 같은 형상을 하고 있는 갓바위에서 유래되었는데 갓 입(笠)자에 바위 암(岩) 자를 써서 입암산이라 합니다. 앞으로 저와 함께 3시간 동안 입암산 습지를 견학하며 역사·문화자원을 직접 살펴보고 이곳의 아름답고 소중한 자연을 체험함으로써 우리 조상들의 생활상을 알아보고 이곳에 사는 여러 동·식물 친구들과의 만남을 통하여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할 '역사가 살아 숨쉬는 생태계의 보고 입암산 습지 탐험' 프로그램은 자연과 문화가 함께 공존하는 입암산성에서 선조들의 문화를 체험해보고, 고산습지가 형성된 배경 및 습지의 역할과 중요성을 알아보는 프로그램입니다. 약간의 산행이 동반되는 프로그램으로 직접 체험을 할 수 있으며 아울러 건강도 증진시킬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격적인 프로그램 진행에 앞서 5분 스트레칭 및 간단한 운동을 통하여 몸을 푸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저를 따라 간단한 동작을 통해 스트레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몸이 풀리셨나요? 그럼 다음 장소를 위해 이동하겠습니다.
2. 주제별 해설	**<지명유래>** 이곳(새재화장실)에서 잠시 쉬어가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곳에 오시면서 남창이라는 지역이름에 대하여 궁금해 하시지 않았나요?(대답 뒤에)네 그렇군요. 그럼 제가 이곳 남창지역의 유래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곳 입암산성은 삼국시대에 처음 성을 쌓았으며 고려때에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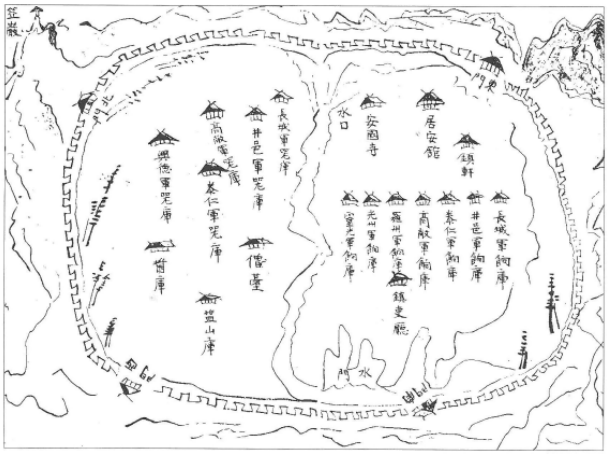
2. 주제별 해설	몽골군의 침입을 막아내고 조선시대로 내려와서는 임진왜란, 정유재란을 겪은 곳입니다. 전쟁을 오래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식량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그 때 큰 곡식 창고가 두 군데 있었는데 하나는 우리들이 지금 있는 곳으로써 성의 남쪽에 있었다고 하여 남창이라 부르게 되었답니다. 처음 우리가 출발했던 곳 바로 옆에 전남대 수련원이라고 있었는데요. 그 곳이 바로 예전에 곡식창고가 있던 곳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곳은 입암산성 남문 방향으로 이곳 갈림길에서 위쪽으로 가는 곳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방향에서 봤을때 오른쪽 길도 있는데 이 길은 어디로 가는 길일까요? (참여유도) 네, 맞습니다. 지도에 나온 것처럼 정읍으로 향하는 길입니다. 그 길을 따라 약 1시간 정도 걷다보면 장성새재라는 이름의 고개의 정상이 나오는데 그 곳은 입암산성에 주둔했던 병사들의 가족들이 살았던 곳으로써 민가와 주막이 번성했던 곳입니다. 이 지역 우리 조상들은 이길을 통하여 정읍과 전주를 거쳐 한양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영남지방 선비들이 과거를 보기위해 한양으로 향할 때 문경새재를 넘어서 힘든 과거길에 올랐던 반면 호남선비들은 과거를 보기위해 이곳 장성새재를 넘어서 과거 길에 올랐던 것이랍니다. 여러분 그럼 새재라는 이름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그에 대해서는 3가지의 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첫번째로 고개가 새의 목처럼 잘룩하게 생겼다 하여 이름이 붙어졌다는 설, 두번째로 사이재가 변했다는 설, 세번째로는 고개가 너무 높아 새도 중간에 잠시 쉬었다고 하여 이름이 지어졌다는 설입니다.

2. 주제별 해설	우리 모두 새재로 향하는 길을 보며 옛날 이 길의 모습을 상상해 보도록 하죠. 어떠세요? 호랑이나 표범 등 무서운 짐승들과 도둑들의 위협을 무릅쓰고 고개를 넘어 다니던 우리 조상들의 모습이 머릿속에 그려지시나요?(참여유도/의견정리) 자 그럼 다음 장소로 이동하겠습니다. **<산림욕>** 이곳에서 잠시 쉬어 가겠습니다. 주변을 보시면 길게 뻗은 울창한 삼나무와 편안하게 누워서 휴식을 즐길 수 있는 나무로 만든 침대가 보이실 겁니다. 이곳 삼나무림 산림욕장은 2007년에 조성한 곳으로써 최근 과학적인 입증을 통하여 더욱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산림욕을 즐기기에 가장 적절한 장소입니다. 자 그럼 우리도 한번 산림욕을 경험해볼까요? 준비가 되셨으면 저와 같이 두 눈을 살며시 감아주시고 코로 숨을 깊이 들이쉬고 내 쉬어 보세요. 어떠세요? 기분이 좀 더 상쾌해 지셨나요? 여러분 혹시 피톤치드라는 말에 대하여 들어보셨나요?(대답뒤에) 네 다들 많이 들어보셨군요. 그럼 과연 피톤치드란 무엇일까요?(대답 뒤에) 네 맞습니다. 다들 자연을 사랑하는 분들이어서 그런지 많이 알고 계시는 군요. 피톤치드라는 말은 식물이라는 뜻의 '파이톤'과 죽이다라는 뜻의 '사이드'가 합쳐진 말로 식물이 내뿜는 휘발성 향기 물질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피톤치드는 숲 속의 각종 균이나 미생물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방어용 휘발성 물질이지만 사람에게는 더없이 이로운 부분이 많아 최근 많은 사람들이 숲 힐링을 위해 삼림욕을 즐기고 있습니다. 이 피톤치드는 주로 활엽수 보다는 침엽수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이곳 남창계곡은 삼나무, 편백

2. 주제별 해설	나무 등이 주종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피톤치드를 온 몸 가득 받을 수 있으며 바로 옆 계곡에서는 두통과 호흡기 질환을 억제하는 음이온 성분이 발생하니 산림욕을 즐기기에 최적의 장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잠시 피톤치드를 느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세요? 건강해지는 것 같지 않으시나요? 그럼 다음 장소로 이동하겠습니다. **<입암산성>** 올라오시느라 많이 힘드셨죠? 여기서 잠시 쉬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곳은 입암산을 찾는 탐방객들이 주로 쉬었다 가는 곳으로써 은선동 갈림길이라고 부르는 곳입니다. 우리도 잠시 짐을 내려놓고 앞 사람 어깨도 주물러 주면서 몸을 푸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약 5분간 몸을 푼다) 자 몸을 다 푸셨으면 이 앞에 있는 안내간판에 담긴 지도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곳에서는 지도를 보면서 입암산성의 개괄적인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 출발할 때 입암산성은 담양의 금성산성, 무주의 적상산성과 함께 호남의 3대 산성 중 하나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럼 왜 이곳이 호남의 3대 산성중 하나가 되었을까요?(참여유도/의견정리) 네 여러 의견들이 나왔는데요.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입암산은 산세가 높고 험준한 반면에 꼭대기가 움푹 들어가 있어 그 형세가 매우 좋은 곳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옛날 사람들은 입암산성의 형상을 마치 말의 구유와 같다고 하였는데 그 만큼 사방이 높으면서도 가운데는 널찍하여 성벽에 올라서면 한눈에 보이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로 좋은 시야

2. 주제별 해설	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 곳 입암산성은 지리적 이점을 바탕으로 예전부터 이 곳 호남지방을 침략한 몽골군이나 왜군의 침입을 막는 호남지방의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로 쓰였던 거랍니다. 입암산성은 지리적으로 전라남·북도의 경계를 이루는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좌우로 고대의 중요한 교통로였던 갈재와 장성새재가 있어, 지리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축성된 성곽유적입니다. 또한 주변의 장성 · 정읍 · 고창 · 나주 · 영광 등 평야지대를 굽어보는 위치에 있어 호남의 곡창지대를 방어하는 목적을 가진 산성입니다. 따라서 고대로부터 주변의 곡창지대를 지키는 산성이었으며 특히 조선시대에는 전라도를 대표하는 입보산성 중에 하나입니다. 입암산성은 높고 험하기로 유명하였으며, 높은 암벽으로 이루어진 산줄기를 따라 축조되어 성 밖에서는 안을 살필 수 없고 성벽에서는 밖을 살펴볼 수 있는 천연의 요새지역의 산성입니다. 2013년 전문가 합동조사에 의하면 입암산성은 주 성곽시설과 익성(翼城 : 날개성)으로 이루어져 주변의 중요교통로인 갈재와 장성새재를 방어하는 군사적 역할을 하였고, 장성, 정읍, 태인, 고창, 나주, 광주, 영광 등 주변 속현의 군량미와 군기를 비축하여, 전쟁에 대비한 호남지역 최대의 군사요충지임을 알 수 있습니다.

2. 주제별 해설	 입암산성 기본 성곽구간 입암산성 익성(翼城), 1구간(갓바위~시루봉~노령), 2구간(동암문~장성 특히 성내 7개의 수중보를 두어 장기간 전쟁 시 필요한 물이 풍부하였으며, 소금 창고, 된장 창고, 군량미 창고, 갖추어져 있어 현재 남아있는 성곽유적 중 그 규모나 시설 측면에서 유래를 찾기 힘든 중요한 산성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입암산성은 호남의 3대 산성 또는 호남 제일의 산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입암산성의 총 길이는 약5.2km 이며 높이는 약 1~4m 정도 됩니다. 또한 6개의 장대, 2개의 성문, 3개의 암문, 관아터, 사찰터, 창고터, 저수보 등의 시설물을 갖추어 성내에서 오랫동안 병사들이 생활하기에 어려움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문제 하나 내겠습니다. 성문과 다른 암문은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조금 어려우시죠? 참고로 힌트를 드리자면 이 시대에는 전화가 없었습니다. (참여유도/의견정리) 네 맞습니다. 암문은 적이 포위하고 있거나 전쟁 시 외부로 지원병을 요청하기 위해 또는 소식을 전하기 위해 적군 몰래 빠져나가던 곳으로 밖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 작은 통로입니다.

2. 주제별 해설	그럼 성문은 어디일까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지도를 가리키며) 여기서 오른쪽 방향으로 올라가면 비교적 형태가 잘 보전되어 있는 남문이 나오는데 남문을 지나 성안을 가로 질러 2.4km쯤 가면 북문이 있습니다. 그럼 서쪽과 동쪽에도 문이 있을까요?(참여유도/의견정리) 옛 지도에나 문헌에 보면 서쪽과 동쪽에는 문은 없고 지금의 서장대지와 동장대지가 있었습니다. 그럼 장대란 어떤 역할을 하던 곳일까요?(참여유도/의견정리) 네 장대란 지금으로 따지면 군대 감시 초소와 같은 곳으로 높은 곳에서 사방을 내려다 볼 수 있게 만드는 곳입니다. 이제까지 입암산성의 역사와 전체적인 모습에 대하여 지도를 보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 실제 모습이 너무나 궁금하시죠?(대답 뒤에)  호남읍지 중 입암산성진지도 (성내 시설 및 주요 속현의 군량미, 군기 창고) 입암산성갈림길에서 남문으로 오르는 길에 왼쪽으로 보시면 깊게 패인 3줄의 길이 보이시죠? 이 길을 자세히 보시면 돌로 쌓아서 인위적으로 만든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입암산성은 좁은 협곡을 따라 조성된 방어시설로 적군이 들어오는 길에 매복했다가 공격할 수 있도록 성 아래부분 부터 남문까지 옹로를 3겹으로 만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주제별 해설	또한 좌측 위로 보이는 성벽은 입암산성 본성 앞쪽에 쌓은 차단성으로 초입에서 남문까지 침입하는 적들을 감시하고 공격할 수 있는 시설물입니다. 이처럼 차단성과, 옹로 등을 겹겹이 만들어 쉽사리 성곽으로 접근할 수 없게 한 선조들의 지혜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교통로를 차단하고 평야지대를 보호하는 입암산성의 구조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시설입니다. 입암산성 초입의 방어시설(좌 : 차단성, 우 : 옹로)
	<남문성곽> 여러분 이 곳까지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잠시 쉬겠습니다. 이곳이 바로 입암산성에서 남아 있는 성문 중 형태가 가장 잘 보존되어 있어 역사적 가치가 가장 높다고 할 수 있는 남문입니다. 방금 전 반듯하면서도 한돌 한돌 정성스럽게 쌓여진 웅장한 산성의 모습에 감동을 받으신 분들의 모습이 여러 분 보이던데요, 이곳에서는 입암산성의 특징과 구조에 대한 설명을 들음으로써 역사적으로 왜 중요한 곳이며 또한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얼마나 뛰어난지에 대하여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일찍부터 산이 많아 산성이 발달한 나라로 교통의

2. 주제별 해설	요지에는 산성을 쌓아 외적의 침입을 막았습니다. 성은 지형에 따라 산성과 평지성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산성의 종류는 크게 테뫼식 산성과 포곡식 산성이 있는데요. 테뫼식 산성은 산 정상을 중심으로 산의 7~8부 능선을 따라 거의 수평되게 한 바퀴를 둘러 산 정상에 마치 테두리를 두른 것처럼 쌓은 산성이며 그 모양으로 인해 시루성이라고도 불립니다. 일반적으로 규모가 작고 축성연대가 오래된 것이 많으므로 소규모 산성이 이에 속하며, 주로 단기 전투에 대비한 산성입니다. 포곡식 산성은 산등성이 지형을 따라 성을 쌓아 하나 또는 여러 개의 계곡을 포용하고 축성된 것을 가리킵니다. 내부에 수원(水原)이 풍부하고 활동 공간이 넓고, 외부에 대한 노출도 테뫼식 보다 훨씬 적어 주로 장기 전투에 사용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입암산성은 테뫼식과 포곡식 중 어디에 속하는 산성일까요?(참여유도/의견정리) 네 맞습니다. 입암산성은 산등성이를 따라 최대한 자연지형을 이용해 돌을 쌓아올려 만든 포곡식 산성입니다. 지금부터 성벽 위를 걸으면서 옛날 사람들이 성벽을 어떻게 쌓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벽을 따라 걸으면서 치 부분까지 이동) 지금 우리들이 걸어온 성곽과 옛날 성곽은 똑같은 모습이었을까요?(대답 뒤에) 아쉽게도 아니랍니다. 성곽은 크게 성체와 여장으로 나누는데 지금의 남문성곽은 이중 성체만을 복원한 것으로 전쟁 시 몸을 숨겨 총과 포를 쏠 수 있는 여장부분과 남문의 성문은 복원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들이 서있는 곳은 치(雉)라고 합니다.

2. 주제별 해설	치에는 이곳처럼 생긴 네모형 치와 반원형처럼 생긴 반원형 치가 있습니다. 치는 주로 방어의 수단으로 사용되었는데 옆에 보시는 것처럼 성벽을 올라오는 적군을 사살하기에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제 손끝을 봐주세요. 밖으로 튀어나온 돌이 보이시나요?(대답 뒤에) 그럼 저 돌들은 왜 밖으로 튀어나와 있을까요?(참여유도/의견정리) 네 여러 대답이 나왔는데요. 저 돌은 마치 사람의 눈썹처럼 생겼다고 해서 미석이라고 부르는 돌로써 적군이 성벽을 기어오를 때 성벽에 쉽게 오르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이랍니다. 조금 더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남문의 끝부분으로 이동) 이곳부터는 산성이 안보이네요. 여기서부터는 왜 산성을 쌓지 않았을까요?(참여유도/의견정리) 이곳은 굳이 성벽을 쌓을 필요가 없는 곳이었답니다. 왜냐하면 보시는 것처럼 천연의 암벽이 있어 성벽을 쌓지 않아도 수비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입암산성에는 이처럼 자연지형을 이용하여 성벽을 쌓지 않은 곳이 여러 곳 있는데 우리는 이를 통하여 지형을 최대한 이용했던 선조들의 지혜를 엿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입암산성의 구조와 특징에 대하여 알아봤는데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기를 봐주세요(성벽을 만지며) 지금은 덩굴과 이끼로 덮여 있는 하나의 돌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돌은 나라를 사랑했던 우리의 선조들의 손길이 자신에게 얼마나 많이 닿았는지 기억하고 있지 않을까요? 또한 몽골군과 왜병 등 침략군에 대항하여 항쟁을 벌이다 얼마나 많은 우리의 조상들이 저 성벽위에서 쓰러져 갔을까요?(의견정리) 다음 장소로 이동하겠습니다.

2. 주제별 해설	**<고려시대 몽골군의 침입과 송군비장군>** 여러분 여기로 모여주십시오.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곳 입암산성은 두차례의 전쟁, 즉 몽골군의 침입과 왜적의 침입을 견뎌낸 자랑스런 호국의 성지입니다. 그럼 잠시 몇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몽골군이 우리나라를 침략한때는 어느 시대일까요? (참여유도/의견정리) 그러면 몽골군은 우리나라를 총 몇 차례나 침략했을까요? (참여유도/의견정리) 네 다들 상식이 풍부하시네요. 그럼 이번에는 몽골군의 침입을 막아내었던 입암산성의 일화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방금 여러분께서 질문에 답한바와 같이 몽골군은 고려 때 총 6차례에 걸쳐 우리나라를 침략하였는데요. 이 곳 입암산성에서는 몽골군의 마지막 6차 침입 때인 1256년 (고종43년)에 고려군과 몽골군의 전투가 있었습니다. 6차 침입 때 몽골군은 특히 호남지역을 공격하였는데 당시 서해의 여러 섬들을 점령하기 위해 몽골의 군대가 출병하였다는 소식을 들은 고려 조정은 이광과 송군비 두 장군을 보내 이들을 막아내려 하였습니다. 두 장군은 군사를 이끌고 길을 나누어 영광으로 내려왔으나 이미 몽골군이 점령하여 굳건히 지키고 있자 어쩔 수 없이 이광은 섬으로 들어가 수비하였으며, 송군비는 입암산성을 지키게 되었답니다. 송군비 장군이 입암산성에 들어와 보니 이미 젊은 장정들은 몽골군에 투항하여 노약자들만 있어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몽골군과 대적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송군비 장군은 꾀를 내어 몽골군을 유인하였는데 일부러 나이 많은 노인과 마른 사람들을 골라 성 밖에 내보내 몽골군이

	정찰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들을 본 몽골군은 입암산성 안에 군량미가 다 떨어졌다고 생각하고 방심하며 아무런 준비 없이 성벽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이때를 이용하여 송군비 장군은 몽골군을 기습하여 수많은 적들을 죽이고 적장 4명을 포로로 잡는 대승을 거두었답니다. 어떠세요? 몽골군을 막아내었던 송군비 장군의 지혜가 참으로 뛰어나죠?(대답 뒤에) 그럼 몽골군과 전투를 벌였던 모습을 상상해보면서 산성 내부로 이동할까요?
2. 주제별 해설	**<임진왜란과 윤진장군에 대한 역사해설>** 여러분 여기를 봐주세요. 지금 여러분 앞에는 하나의 비석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 비석은 누구의 비석일까요?(대답 뒤에) 네 아시는 분도 계시는군요. 이 비석은 임진왜란 당시 의병을 이끌고 왜군과 전투를 벌인 윤진의 공을 기리기 위하여 세워진 비석입니다. 그럼 여기서는 임진왜란 당시 이곳 입암산성에서는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에 대하여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1592년 도요토미히데요시에 의해 통일을 이룬 일본은 명나라를 공격하는 길을 빌려달라는 명분으로 우리나라를 쳐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이를 뭐라고 부르나요?(대답 뒤에) 네 맞습니다. 임진왜란은 7년 동안 지속되었는데, 우수한 무기와 철저한 준비를 갖춘 일본군의 공격에 당시 조선군은 연전연패를 거듭하였습니다. 급기야 선조임금은 평양을 거쳐 의주로 피난가기에 이르렀습니다.

2. 주제별 해설	그러나 각지에서 일어난 의병과 이순신이 이끈 수군의 승리로 인하여 전력을 재정비하였고 결국에는 일본을 몰아내게 되었습니다. 임진왜란의 승리에는 의병들의 숭고한 나라사랑 정신이 뒷받침 되었는데, 특히 입암산성과 관련된 의병장으로 윤진을 들 수 있습니다. 그럼 윤진은 어떤 인물 이었을까요? (참여유도) 윤진은 남원 윤씨로 어려서부터 학문에 열중하여, 하서 김인후 선생이 일찍이 크게 될 인재라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뛰어난 학문에도 불구하고 입신양명에 관심이 없어 과거를 보지 않았답니다. 효행도 뛰어나서 부모의 삼년상을 극진히 하였는데 그 비통함이 다른 사람마저 감동을 주어 주변사람들의 천거를 통해 음서(蔭敍)로 사옹원봉사로 임명되었습니다. 임진왜란이 나자 윤진은 다음해 전라도로 왜병이 침입할 것을 예견하고 입암산성의 수축을 전라도관찰사에게 건의하였는데 그로 인하여 입암산성 수축 직을 맡게 되어 군량미를 갖추고 포루를 보수하였습니다. 그 후 1597년 정유재란때 왜병이 남원을 점령하고 입암산성으로 진격을 하자 모든 관원이 도망가는 사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때 친지들이 윤진을 찾아와 '나라에서 자네에게 입암산성을 보수하라고만 했으니 같이 피난을 떠나자'라고 말하니 이에 윤진은 '성을 보수하라는 것은 성을 지키라는 것'이라며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홀로 의병 백여명을 모아 끝까지 입암산성을 사수하다가 산성의 함락과 함께 결국 순국하고 말았습니다. 윤진의 순국사실을 들은 그의 처 권씨는 남편의 죽음을 슬퍼하다가 살아서 오욕을 치르니 차라리 죽겠다며 지아비를 따라 자

2. 주제별 해설	결을 하였는데 왜군들도 부인의 절개에 감동하여 시신을 훼손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후 전쟁이 끝난 후에 윤진은 좌승지로 추증되었고 권씨에게는 정려가 내려졌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보고 계시는 순의비는 윤진이 순국한지 146년이 흐른 뒤에 세워진 것으로써 영조 18년(1742)에 장성현감 이현윤이 입암산성을 정비하면서 윤진의 숭고한 뜻을 기려 세웠다고 합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그 당시에 입암산성에서 왜군에 맞서 싸우던 의병 중 한명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행동하였을까요?(참여유도/의견정리) 네 다양한 의견이 나왔는데요. 끝까지 나라를 위해 몸을 바쳐 싸웠던 조상들의 정신을 우리 후손들은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숲길 맨발로 걸으며 자연 느끼기> 이제 왔던 곳을 다시 되돌아 갈텐데요. 내려가기에 앞서 맨발로 숲길을 걷는 체험을 해볼까 합니다. 이 곳 윤진순의비부터 마을 터까지 약 200m 구간은 부드러운 흙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우리사무소에서는 이 구간을 맨발로 걷을 수 있는 구간으로 지정을 해 놓았습니다. 발바닥 신경이 사람의 오장육부와 연결되어 있다는 건 다들 잘 아실텐데요. 맨발로 걷게 되면 발바닥에 전달되는 마사지 효과로 인하여 혈액순환에 도움을 주게 됩니다. 또한 장에 자극을 주어 소화와 배변활동이 활발하게 된 답니다. 혹시 여러분중에 변비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 계신가요?(대답뒤에) 그렇다면 숲길 맨발 걷기를 적극 권해드립니다. 자 그럼 모두들 저와 같이 신발과 양말을 벗고 맨발로 이 길을

2. 주제별 해설	걸어볼까요?(모두 신발을 벗은 후) 처음에는 맨발의 감촉이 이상하게 느껴지겠지만 차츰 익숙해질 것입니다. 또한 맨발의 감촉에 더욱 집중을 하다보면 모든 감각이 더욱 예민해 지기 때문에 푹신푹신한 흙, 솔솔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 따사로운 햇살, 새소리와 함께 숲 곳곳에서 살아가고 있는 생명들의 꿈틀거림을 느낄 수 있음과 동시에 어느 순간 나의 몸과 마음 모든 것이 자연과 하나가 되는 느낌을 받을 실 수 있을겁니다. 한 가지 당부말씀 드린다면 이 길을 저희 직원들이 깨끗하게 치워놨지만 자연 그대로의 길이므로 가시나 돌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바닥을 잘 보면서 다치지 않도록 조심해 주세요(맨발로 걷기) **<옛 성내리에 대한 설명과 선조들의 생활상>** 이곳이 바로 성내리 마을터입니다. 숲길을 맨발로 걸으니 평소 우리들이 신을 신고 아스팔트 위를 걷는 것과는 느낌이 많이 달랐을 것 같은데 어떤 느낌을 받으셨나요? 흙을 맨발로 자주 밝으며 자연과 가깝게 지냈던 우리 조상들의 모습이 떠오르시지 않았나요?(참여유도/의견정리) 이곳에서 숲길 맨발 걷기 체험을 마치고 발을 씻겠습니다. 깨끗이 씻으시면서 마사지도 해주세요. 그래야 발의 피로가 잘 풀린답니다. 발을 씻으시면서 주위를 한번 둘러보세요. 허물어진 돌담의 흔적도 보이고 예전에 쓰였던 절구의 모습도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참여유도/의견나누기)

2. 주제별 해설	네 이곳은 예전에 사람들이 살았던 성내리라는 이름의 마을이랍니다. 왜 성내리라는 이름이 붙여졌을까요?(대답 뒤에) 네 맞습니다. '성안에 있는 마을'이라는 의미에서 유래되었답니다. 이곳에 살았던 사람들은 유교의 가르침에 따라 옛 조상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성인은 갓을 쓰고 처녀, 총각은 댕기를 딴채 살았는데, 6.25전쟁이후 점차 마을 주민들이 다른 곳으로 이주하고 1987년 마지막 한집이 떠난 후 경작했던 곳이 습지로 변하게 되었답니다. 50년대에서 70년대를 거치면서 전국이 현대화가 되어갈 때 입암산성의 성내리에는 현대화의 문명이 미치지 못했던 것이랍니다. 그럼 이처럼 험한 산속에서 옛 성내리 주민들은 어떻게 생활했을까요?(참여유도/의견정리) 지금 보시는 사진이 이곳 성내리 마을의 전경과 주민들의 모습입니다.(옛 사진들을 보여주며) 넓은 터와 초가집 지붕들의 모습, 댕기를 두른 주민 등 많은 부분이 지금과 많이 다르죠? 이곳의 주민들은 산속 깊은 골짜기에 나무를 베어내고 그 자리에 밭이나 논을 일구어 농사를 짓고, 주변의 산에서 약초를 캐고, 숯도 굽고 버섯도 키우면서 산과 함께 살아왔습니다. 예전에는 이곳에서도 주민들이 소를 이용하여 경작을 했었는데 이곳 성내리 가까운 곳에는 소가 산에서 뒹굴었다고 해서 이름이 붙은 '소둥근재'라는 곳도 있답니다. 참 재미있는 명칭이죠?(대답 뒤에)피로가 다 풀리셨나요? 그럼 이번에는 이곳 주민들이 논농사를 지었던 곳이 어떻게 변했는지 살펴볼까요?

2. 주제별 해설	**<입암산성 습지의 특별함과 자연에서 습지의 역할>** 입암산성 성내에는 7개의 저수보를 갖추고 있는데 이는 전쟁시 필요한 수량을 확보하는 것 이외에 유사시 해자(垓字)의 역할을 하는 방어시설이기도 합니다. 저수보를 갖추고 있는 산성도 많지 않지만 입암산성의 경우처럼 거대한 저수보 7개를 갖추고 있는 경우는 없다고 합니다. 또한 저수보들은 침입하는 적들을 막아내고 성내 주요 시설인 관아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 관아 주위로 만들어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수보의 규모는 큰 것은 길이 80m, 높이 10m, 폭 7m의 거대한 석축 및 토축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오랜 기간 보수와 수축을 거듭하여 현재의 모습으로 남아 있게 된 것입니다. 입암산성 내 저수보(좌 : 석축 저수보, 우 : 토축 저수보)
	입암산성 습지는 수보를 중심으로 형성되었으며, 해발고 503m, 면적 약35,000㎡로 산지습지 중에서 그 규모가 크고 용출수 및 유입수가 풍부한 곳입니다. 또한 지금도 습지로 진행되어가고 있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옛날부터 저수보로 인한 인공적인 습지가 조성되었다가 구한말에서 1980년대까지 사람들의 의해 경작지로 사용되어 습지의 모습이 사라

2. 주제별 해설	졌으나 이후 사람들이 떠나고 다시 습지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입암산성 습지 내 옛 마을 사진(좌), 현재 입암산성 습지 전경(우) 입암산성 습지에는 다양한 생물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버드나무와 달뿌리풀을 포함해 69과 136속 159종 29변종 1아종의 식물이 살고 있으며, 붉은배새매, 새매, 소쩍새, 까막딱다구리 등 72종의 조류와 삵, 멧돼지, 고라니 등 6과 7종의 포유류가 살아가고 있는 생태계의 보고입니다. 이외에 다양한 양서파충류와 곤충류가 서식하며 습지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2. 주제별	**<동학운동과 녹두장군 전봉준장군>** 다시 남문지에 도착했습니다. 이 곳에서 잠시 쉬며 입암산성과 관련된 중요한 역사인물을 한분 더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새야, 새야, 파랑새야 녹두밭에 앉지 마라' 이 노래를 생각하면 떠오르는 분이 계실겁니다. 누구일까요?(참여유도) 네 맞습니다. 바로 녹두장군 전봉준장군입니다. 이곳 장성은 반외세와 반봉건을 내세우며 동학운동을 벌였던 전봉준장군과 매우 깊은 인연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근에 위치한 장성군 황룡면에는 전봉준장군이 3,000명의 동학군을 이끌고 관군과의 전투에서 최초로 대승을 거두었던 곳인 황룡전적지가 있으며 이곳 입암산성은 전봉준장군의 마지막 여정을

해설	함께한 곳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전봉준장군이 입암산과 어떠한 연관이 있는지 역사적 현장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관군과 일본군의 공격으로 수세에 몰리던 전봉준장군 일행은 공주 우금치 전투에서 패배한 후 동지들을 모아 재기하기 위하여 이곳 입암산성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나 관군의 추격이 계속되자 전봉준장군 일행은 백양사로 피신하였다가 순창으로 빠져나가게 되었고 결국 순창에서 옛 동지의 밀고로 붙잡히게 됩니다. 결국 이곳 입암산성은 전봉준장군이 마지막 재기를 노리던 곳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백양사 청류암 부근에 장군샘이라 불리는 샘물이 있어 전봉준의 자필로 알려진 남천감로 각자가 남아 현재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이곳 입암산성은 외세로부터 나라를 지키려했던 우리 조상들의 피땀이 서려있는 곳이자 국란의 아픔을 고스란히 간직한 역사적 성지입니다. 후손인 우리들은 이곳을 더욱 아끼고 보존하여 다음 세대들에게 잘 남겨주어야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 역사의 흔적을 찾아 이동할까요?

2. 주제별 해설	**<송정행상각자>** 이 곳에서 잠시 쉬어 가면서 입암산에서 숨쉬고 있는 역사의 현장 중 마지막 부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입암산성을 배경으로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우리의 선조들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희생을 치르셨는지에 대하여 배웠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만들기 위한 일제의 침략을 막아내지 못했고 그로 인하여 이후 36년 동안 일본의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우리나라는 일제에게 수많은 피해와 수탈을 당하였는데요. 그 대상에는 우리의 아름다운 자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송정행상각자를 가리키며) 앞에 보이는 바위는 일제시대의 피해를 온몸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글자가 쓰여져 있는 것이 보이실 텐데요. 이 글은 일제시대 때 장성에 살았던 우편국장 송정행삼랑과 소림소삼랑이 1929년 새긴 글로써 자신들의 공덕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일제시대 때 국권을 빼앗은 일본인들은 명산마다 정상부에 철심을 박고 멋있는 바위에는 이렇게 각자를 통하여 자신들의 공덕을 새겨 넣었는데 선조들이 피땀으로 지켜온 나라를 잃어버리면 어떠한 결과를 낳는지 알려주는 귀중한 자료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비 말고도 일제시대 때 훼손된 자연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참여유도/의견정리) 네 여러 대답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해조수를 구제한다는 명목아래 호랑이, 늑대 등 야생동물들을 수 없이 죽이고 비행기의 원료

	로 쓰기위하여 수 많은 소나무를 잘라 송진을 채취했던 것을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침략에 의하여 훼손된 우리의 자연이 회복을 하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할까요?(참여유도/의견정리) 소중한 자연이 다시는 아픔을 겪지 않도록 우리 모두 노력해야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장소로 이동하겠습니다.
3. 마무리	**<소감나누기 및 몸풀기 체조>** 여러분 안전사고 없이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역사의 흐름에 맞춰 입암산성을 비롯한 여러 가지 역사·문화자원을 직접 살펴보고 아울러 아름답고 소중한 우리 자연을 체험하는 시간을 함께했습니다. 어떠세요? 오늘 함께 한 시간이 즐거우셨나요?(대답 뒤에) 또한 우리 선조들의 자연과 함께 했던 삶과 나라를 아끼고 사랑했던 마음을 배우셨나요?(대답 뒤에) 그럼 오늘 보고 듣고 느낀 것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 한 가지씩 이야기 해볼까요? (참여유도/의견정리) 네 다양한 내용들을 말씀해주셨는데요. 오늘 여러분께서 흘렸던 땀방울만큼이나 소중하고 보람된 시간이 되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럼 이제 장시간 탐방을 하느라 힘들었을 근육을 풀어주기 위해 간단한 스트레칭을 하겠습니다. (스트레칭을 통해 몸을 풀고 분위기 전환의 시간을 갖는다.) 오늘 해설은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돌아가시는 길에 인근에 있는 내장산국립공원 백양사지구에 들려 700년된 갈참나무와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비자나무 군락을 꼭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해설을 마치겠습니다.